

50대 시작되면 안과 정기 검진 필수

황반변성

“선생님, 책을 읽을 때 글자마다 공백이 보이고, 물건을 바라보면 선이 굵어보여요. 한쪽 눈시력이 저하됐는데 곧 다른 쪽 눈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무서워요.” 진료를 시작하면서 만난 60대 이 환자는 단순한 시력 저하인 줄 알았는데 ‘황반변성’이라는 질환명을 듣고는 불안해했다. 황반변성은 녹내장, 당뇨병성망막병증과 함께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으리라.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방법, 혹시 걸렸어도 시력상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노화 발병...예방·관리 최선

사람으로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게 노화와 질병이다. 흔히들 생로병사라 한다. 눈에서는 노화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백내장이다. 백내장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수술로서 혼탁 된 수정체를 인공으로 만든 수정체로 교체하면 해결이 된다. 그러나 황반변성은 중추신경계의 병변으로 한번 문제가 생겨 손상시 시력회복이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졌다.

황반은 눈 속의 신경조직으로 노화를 피할 수 없어 변화가 생겨 시력의 저하가 발생할 때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눈을 카메라와 비교할 때 황반은 필름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필름은 사진을 찍은 뒤 현상해 버리고 다시 새 필름으로 교체해 사용하지만 우리 눈 속의 황반은 그럴 수 없다. 이 질환은 완치가 될 수 없어 예방과 조기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다.

먼저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보자. 불행히도 나이 들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조기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시력 저하를 막는 것이 황반변성 완치에 대한 최선이다.

발병 위험 인자 중 첫번째로는 나이를 꼽을 수 있다. 주로 60대 이상에 발병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할 경우 위험도 2배 이상 증가, 고혈압인 경우 위험도 45% 증가, 항산화제와 루테인 섭취가 부족할 경우 위험도 2배 이상 증가한다.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발병한 환자의 42%는 5년 내로 다른



최광주 아이안과 원장이 평소 황반변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중추신경계 병변... 손상시 시력회복 불가능 노화·흡연·고혈압 동반시 발생 위험도 높아

한쪽 눈에도 발병한다. 가족력 망막변성은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 언급된 위험인자 중 나이와 가족력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나 흡연을 중단하거나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 평소 항산화제와 루테인이 풍부한 야채나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거나 이들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한쪽 눈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그 눈의 시력저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서 반대편 눈에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제(루테인)의 복용이 권장된다.

◇증상

황반변성이 발생했는지를 알려면 어떤 증상을 의심해야 할까? 시력, 즉 사물의 형태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황반변성의 증상은 욕실의 타일이나 중앙선 등 선이 굵어보이거나 책이나 신문물을 읽을 때 글자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사물의 가운데가 검거나 빈 부분이 있고, 물체가 찌그러져 보인다. 대비감이 떨어지면서 시야의 중심에 영구적으로 검은 점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느낌이 생기면 즉시 안과적인 검진을 받고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

아야 한다. 50대가 넘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고 있다면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 치료와 예방도 빠르다.

◇치료법

황반변성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 황반변성도 발생과 악화와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다보면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환의 진행을 막아 시력상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를 억제하는 항체가 약제로 개발된 후 시력의 유지가 가능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도 될 수 있다.

황반변성에서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황반아래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신생혈관의 활동이다. 이 신생혈관에서 누출이나 출혈이 생기고 이로 인해 황반의 조직이 반흔화(흉터)돼 시기능이 황폐화되기 때문이다.

치료는 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의 발생을 막거나 생긴 혈관을 퇴화시키는 작업이다.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가 정상적인 상태보다 눈 속에 많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그 혈관을 유지시

키는데 중심 역할을 한다. 이 물질의 역할을 억제시키는 항체를 투여해 신생혈관의 발생을 막고 퇴화를 유도하는 것이 치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항체주사는 눈 속에 투여해 시력 유지가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치료의 시작은 첫 3달에는 매달 투여해 병을 억제하고, 그 이후에는 억제된 병의 상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유지차원의 투여를 시행한다. 매달 투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매달 안내주사를 시행할 경우 주사에 따른 합병증 우려, 경제적인 부담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망막을 전공한 망막전문의들의 치료방향은 먼저 3회를 투여하고 병변이 안정되면 다음 투여부터는 투여기간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 중이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및 자가 검진을 통해 질환의 진행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리=오송지 기자 ohssji@kjdaily.com

도움말



최 광 주
아이안과 대표원장

조선대병원,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사망원인 2위인 심장질환

조선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조사·발표한 제4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과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수술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의 지표를 이용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술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진 관상동맥의 혈관을 대신해 다른 혈관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주는 수술을 말하며, 찢어지는 듯한 가슴통증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며, 돌연사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홍 병원장은 “여자보다 남자의 발병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장질환이 나이 추위되면서 많이 나타나지만, 적절한 수술과 약물 사용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오송지 기자 ohssji@kjdaily.com

내년부터 국가 실시 대장암 검진도 무료

내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은 무료였다. 하지만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

지된다. 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으로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은 무료였다. 하지만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연합뉴스

빛고을전남대병원 윤택림 교수

아프리카 수단서 의료기술 전수



빛고을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윤택림 교수(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장)가 최근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기술을 전수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렸다.

1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윤택림 교수는 고관절 분야의 명의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통해 현지 정형외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고관절 수술법에 대한 실제 시연을 시행하고, 특별강연도 가졌다.

이번 윤 교수의 수단 방문은 수년간 전남대병원에서 수련했던 수단의사들의 주선에 의한 현지학회의 초청으로, 아프리카 의료수준 향상과 수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뤄졌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수단 정형학회 주최로 윤택림 교수의 특별워크숍이 수

단 사르그 알릴 병원에서 열렸다.

워크숍에서 윤 교수는 자신만의 수술법인 근육 보존 인공 고관절 치환술과 미국특허 받은 두부위 최초 침습법 등 새로운 수술법에 대한 두 번의 강의와 네 건의 수술 시연을 진행했다. 이어 8일부터 사흘간 세계 각국에서 약 500여명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참석한 제8회 수단 정형외과학회(SOSA) 학술대회에서 최신 고관절 수술법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윤 교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수단의 많은 의료진이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매우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이 수단 의료계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송지 기자 ohssji@kjdaily.com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